

향군, 국군장병 노고 격려... '코로나19 극복 헌신' 감사

육·해·공군본부·해병대·의무·화생방사령부 방문, 격려금 전달

국민안전, 국가안보 초석... 정부 안보정책 뒷받침

향군은 5월11일 오후 육·해·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금 총 6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대전 계룡대 각 군 본부를 방문한 김진호 향군회장은 서욱 육군 참모총장, 부석중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각각 격려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군이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병대사령부에는 정관옥 해군 부회장이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 5월12일 신임 간호장교로부터 군의관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인 의무사령부와 'K 방역'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방문해 격려금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향군은 지난 4월22일에는 역대 회장이던 국방부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헌신한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8일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하는 한편 향군회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극복 성금 1억393만 원을 모아 3월18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향군은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안보활동 3대 기조'로 삼아 매년 군부대를 찾아 지원활동도 해 오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전국조직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물론 정부의 안보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향군은 5월11일 오후 육·해·공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방문. 서욱 육군 참모총장, 부석중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에게 각각 격려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군이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향군, '대대급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사업' 수주

국군장병들의 국가관 확립과 군인정신 제고를 위해 매년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2020 대대급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사업'을 향군이 수주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향군을 비롯하여 국방안보포럼, 한국능률협회 등 9개 업체로 국방부는 향군의 전문성과 강의운영 능력 등을 인정

하여 최종업체로 선정했다.

전군 대대 및 독립중대 단위 장병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18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국군의 사명을 통한 올바른 안보관 확립 ▲6.25 전쟁 70주년 계기 선배전우들의 애국심과 군인정신 사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우리군의 역할 등을 주제로

510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국방부 용역사업 입찰 성공은 기존의 향군에 덧붙여진 "향군의 안보교육은 고루하고 진부하다"는 세평을 뒤집고 국방부가 선정한 내·외부 전문가들로부터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군의 전문적인 교육능력을 인정받은 성과라 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6·25 70주년 특집 화보 6·7면

향군 성명

호국영령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존재하지 않아

일부 정치인 잘못된 역사인식 우려...백선엽 장군 매도, 국군창설 부정하는 것

향군은 5월27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친일청산"을 운운하며 "국립현충원에서 친일과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론분열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과 이수진 당선자가 5월24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2020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

우기' 행사에서 "친일과 무덤을 파묘하자"면서 21대 국회에서 "친일과 파묘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또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5월13일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외병 중인 백선엽장군 사무실을 찾아가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되었다가 다시 뽑아내야 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향군은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정사실화하여 "현충원에서 파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며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역사 뒤집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창군 원로들을 친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군창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백선엽 장군은 창군 멤버로서 6.25전쟁 당시 '다부동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며 인천상륙작

전 성공 후 평양탈환작전을 성공시킨 자타가 공인하는 전쟁영웅일 뿐만 아니라 휴전 후에는 국가안보의 기틀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일등 공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애국자를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국군창설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전쟁영웅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더 이상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목

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을 욕되게 하지마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당국에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여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한 뒤 "안보에는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온 국민 모두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6.25전쟁 70주년을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아 우리가 직면해 있는 국가적 재난을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1면 '대대급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사업 수주' 에 이어서>

환골탈퇴 새 출발, 객관적 평가로 전문 교육능력 인정받아 대대·독립중대 단위 장병 대상, 12월18일까지 510회 실시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향군안보교수

향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국방부 민간 전문강사 용역사업에 참여하여 장병 정신교육을 도맡아 왔으나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용역사업에서 탈락함으로써 명실공이 국가안보의 제2보루를 자처하면서도 타 경쟁업체에 뒤처지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향군은 기존의 모든 방식을 원점으로 되돌려 환골탈태의 자세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 먼저 석 박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27명의 전담강사와 다방면의 전문 강사 11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편성하여 국방부 지침의 적극 이행을 위한 교육준비단을 구성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내용과 강의기

법, 스토리텔링 형식의 공연융합식 교육방법으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스스로 느끼고 신념화 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 강사의 선별과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연구 강의·현장방문, 처벌 및 해촉 규정을 포함한 강사 운영내규의 보완, 통일 교육원 안보전문 과정 직무교육 참가, '우수 강사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 우수 강사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했다.

향군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전



한 안보의식 함양과 장병들의 국가관·군인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교육준비와 자체 평가 및 감독, 주기적인 피드백 반영, 커리큘럼 구성과 콘텐츠 개발 등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향군 산하업체 수익사업 보훈처 감독 대상 아냐”

향군, 보훈처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본회가 출자해 설립한 향군 상조회 등 산하 단체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5월17일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8년 향군에 대한 특정감사 후 산하 상조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장례문화원 및 상조투어 등 수익사업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해 본회는 소송

을 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향군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향군상조회가 신규 사업추진이나 확대 시 향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장례식장 사업 등 운영주체는 자회사인 상조회라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보훈처가 자회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향군인회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훈처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요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가 장례문화원을 매입한 것 등과 관련해 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 뿐더러, 애초에 수익사업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 승인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별기고

6.25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지도 벌써 70년이 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호국영웅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90세가 넘는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다. 참혹하게 동족간의 유혈전쟁을 불러일으켰던 6.25 전쟁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선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반도에 전쟁으로 인해 한국군과 유엔군을 포함, 약 78만 명과 함께 민간인이 약 99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동시에 피난민 32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여 명, 전쟁고아 10만여 명 등 수많은 인명손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토는 초토화되어 폐허로 변하고 국민들은 배고픔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가 전쟁피해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백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했을 만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 사회, 문화적 성장을 이루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왔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및 서구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을 통하여 시장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세계 7대 교역국으로 경제 규모도 세계 12위를 차지하여 선진국 대열에 한걸음 다가서 있다. 반면 북한은 구 소련과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으로 사회주의 통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되고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든든한 혈맹인 미국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휴전이후 주한미군의 존재는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면서, 안정된 안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없었다면 북한과 군비경쟁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국방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만큼 경제 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한반

도의 상황이 20세기 초반과 유사하다고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에 한·미 동맹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힘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안보가 튼튼하고 바로 서야 모든 경제적, 문화적 활동이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과거 6.25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였다. 국가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발전은 의미가 없다. 근대사에서도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교훈을 지켜 보았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거 호국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지금 이 시간에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사회 현상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마다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며 요란하게 나라사랑을 외쳐댄다. 현충일을 전후해서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현충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충혼탑에는 인파로 북적이지만 그 숫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행사 때마다 국가는 호국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그 때 뿐이다.

6.25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과 국가안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7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고 남북 간에 대치 상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오히려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의 안보상황은 더욱 위중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올해 만이라도 뼈아픈 과거를 기억을 되새겨 미래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문근형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향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적극 동참

전국 조직 활용,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도 앞장

향군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과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6.25 전사자로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천여 명이며 이 중 유가족 DNA확보는 4만 4천여 명으로 약 33%에 불과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향군은 지난해 1월부터 '6.25 전사자 유해발굴지원 추진계획'을 각급회에 하달 하였으며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전국조직을 활용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6.25전사자 명부를 들고 직접 유가족을 찾아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증언 확보 및 DNA채취 절차 안내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 양구군 향군 회장으로부터 6.25전사자(인민군 추정) 유해 집단매장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통보한 바 있으며 각급 회에서는 지역 유가족들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DNA채취 16건, 증언2건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유해발굴 현장을 찾아 국군장병을 위문하고 있는 향군회원들

아울러 향군은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향군 각급회는 지역 보훈단체와도 협력하여 활동 폭을 넓히고 홍보 팸플릿,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알리는 한편 매주 수요일 국방일보에 게재되는 무공수훈자

명단을 전국 조직이 공유하여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향군은 6.25전쟁 당시 전사하여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있는 13만3천여 명의 호국용사 유해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며 훈장 찾아주기 캠페인도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안보전망대

과도한 방위비 요구

협력 절실한 시점에 한미동맹 약화시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미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미 조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5월21일(현지 시간) 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애석한 대목은 동맹이 이 한 가지 기술적인 이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좋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두 나라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는 전 세계에서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의회 멤버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동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며 "우리는 한국이나 유럽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㉞

창설당시 1국 3부로 출발, 재건총회 후 250만 거대조직으로 성장

향군 조직(상) : 1952년 창설~1970년대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은 1952년 2월 1일 당시 임시수도인 부산의 동아극장에서 허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되었다. 향군의 설립목적은 국방부 병무행정의 집행을 지원하고 동원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며 국방부 병무국 예하조직으로 탄생하면서 초대회장은 백홍석 병무국장(육군 준장)이었다.

향군조직의 변천과정을 보면 창설 이래 시대 상황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50여 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기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변천사를 다 거론할 수 없어 연대별로 3회에 걸쳐 특징적인 역사만 살펴보기로 한다.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창설당시 조직

1961년 해체와 재건총회 거치며 확대 개편

창설당시 향군조직은 빈약했다. 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 감찰부, 교도부, 총무부등 1국 3부로 출발했다. 이어 곧바로 시·도지부와 읍·면·동 직장분회까지 창립하여 그해 6월30일에는 1940개 분회조직을 갖추고 회원수가 3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향군은 1961년 5월23일 국가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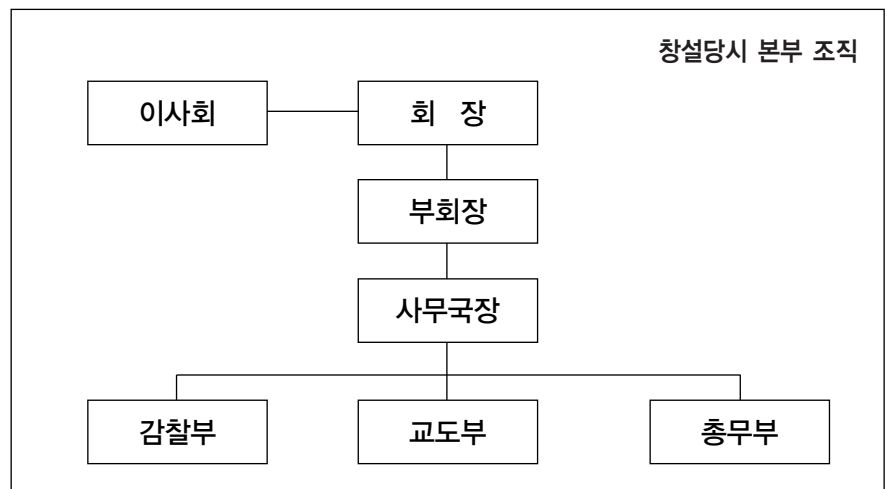
최고회의 포고문 6호에 따라 해체되었다가 다시 12월 12일 재건총회를 거쳐 재창설되면서 조직도 국민재건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확대개편 되었다.

본 회의 재건조직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비서실장, 총무국(총무과, 관리과), 운영국(운영과, 조사통계과), 교도국(교도과, 공보과)으로 편성되고 교도국 직속으로 국방신문사(오늘의 재향군인신문)를 두었다.

그러면서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1963년 전역장병들을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하도록 제도화하여 회원 수도 급격히 늘어 1968년에는 250만명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한다.

이때 향군회원들을 주축으로 4월1일 200만 향도예비군을 창설하게 되었으며 향군 활동도 총력안보운동을 전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 회원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각급회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명칭을 본부→분회, 지회→시·도회, 연합분회→시·군·구회, 분회→읍·면·동회로 변경했다. 이때 본부의 조직편성은 회장, 부회장(4명), 사무총장, 사무차장, 감사실, 기획관리실, 총무국(총무과, 경리과), 회원국(운영과, 예비군과, 복지과), 섭외국(섭외과, 공보과),



업무국(업무과, 개발과)을 두었으며 의결기구로 이사회와 총회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회기구도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공보실, 총무부, 회원부, 개발부를 두었으며 시·군·구 지회도 유사기구를 두어 업무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1970년대 자주국방과 총력안보운동 본격 추진 수익사업 강화, 자립기반 확대 ... 조직정비

1970년대 초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동·서진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통일문제가 이슈화되고 1972년 닉슨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 되면서 자주국방과 총력안보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향군은 조직을 확대하

고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시책인 총력안보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74년 6월19일 제3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직을 보면 지회부는 그대로 두고 기획관리실의 감사과를 독립시켜 감사실로 승격시키고 안보국 신설, 조직교육국을 운영국으로, 복지국을 사업국으로 개칭하면서 수익사업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으며 총무국을 총무과로 축소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1975년부터 시작 된 한국전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이 앞장 결실을 거둬으로써 국제부를 신설하여 해외 공공의교를 강화 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됨에 따라 새마을과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홍보실>

6·25전사자 유해 발굴,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각 부처와 연계, 유전자 시료채취에 전력...신원확인센터 준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던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5월6일부터 강원도 양구 등 7개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전국 36개 지역에서 전개된다.

국방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으로 국가보훈처 등 10여 개 관련 부처와 유해발굴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총 5만여 개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6·25전쟁 간 미수습된 13만 5천 여 전사자·실종자를 고려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올해 1만2천500개의 유



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부처의 기능과 연계하여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수적인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독려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신원확인센터'를 준공하고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여건을 구비하여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방단신

정경두 국방장관, 농협중앙회에 감사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월 19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대표 임원을 초청하여 지난해 12월 업무협약 이후 추진되어 온 농협중앙회의 '6·25 전사자 유가족 시료 채취' 홍보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부터 전국 NH농협 은행에서 신규 발급되는 입출식 통장

에 '유가족 찾기' 홍보문구를 삽입하고 ATM기기와 하나로마트 광고판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210여만 명의 조합원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해 시료채취 등 사업 참여 희망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병무청, 병무행정 매뉴얼 발간

병무청은 5월19일 직원의 역량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행정 업무 매뉴얼인 'HaNaRo 병무행정전문가'를 발간했다.

그동안 실무자를 위한 병무행정 업무매뉴얼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들어 왔지만 업무 처리절차 중심의 매뉴얼만으로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유

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업무매뉴얼은 업무 절차, 법령 등 관련근거 뿐만 아니라, 업무과정에서 이전 담당자가 습득한 업무 노하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하나로(HaNaRo) 담는 것을 목표로 편찬됐다.

육군 인사사령부, '육군복지포털' 서비스 제공

육군인사사령부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육군 복지 시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 초 육군복지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지금까지 육군회관·계룡스파텔 등의 복지시설을 현역·예비역 간부와 용사,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해 온 육군인사사령부는 다음 달 초부터 현재 제작 중인 육

군복지포털 인터넷 홈페이지(<https://welfare.army.mil.kr/main.do>)를 통해 장병 누구나 시설정보를 검색하고 예약까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출장·여행을 가는 장병뿐만 아니라 면회 오는 용사 가족들까지 시설 예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예약코너 내에 별도 시설 소개와 휴무일정, 전화번호 등을 첨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육군 2작전사, 안동산불 진화 지원

육군2작전사령부가 병력과 진화장비, 헬기 등을 동원해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 발생한 산불진화작전에 나섰다.

2작전사는 4월25일부터 이틀 동안 50사단, 201특공여단 장병 총 470여 명과 헬기 4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산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황인권 2작전사령관과 각 부대 지휘관이 현장에 위치해 산불진화작전을 지휘했다.

2작전사는 산불진화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에게 잔물제거 작전간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방진마스크·면장갑·수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작전 투

입 전후 발열체크, 휴식 및 식사 장소 분리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함께 실시했다.

바다의 날 앞두고 해안정화활동

해군사관학교는 제25회 바다의 날(5월31일)을 앞두고 5월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해사 정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속천해안마을까지 대대적인 해안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안정화활동에는 장병과 군무원 800여 명이 투입됐고 고속단정이 동원됐다. 장병과 군무원들은 교내 해안을 6개 구역으로 나눠 파도에 밀려온 어구와 로프, 스티로폼, 비닐,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수거했다.

마스크 제작 취약계층 기부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파라업' 동아리 장병들이 직접 제작한 마스크를 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기부해 주변에 감동을 주고 있다. 파라업은 파라코드(Paracord·낙하산 줄)와 업사이클링(Upcycling·새 활용)을 조합한 이름으로, 버려지는 낙하산 줄을 활용해 다양한 액세서리 및 생활용품 만드는 DIY 동아리다.

'파라업' 동아리 장병들은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KF80 필터와 부직포 등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해 마스크 제작에 돌입, 부산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6·25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동참해주세요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채취 참여

채취대상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친·외가 8촌 이내)

참여방법

- 직접방문 : 가까운 보건소·보건지소, 예비군 동대,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전화신청 : 1577-5625(시료채취키트 발송/방문 신청)
※ 참여 시 1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 지급
※ 보건소, 군병원 방문 채취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

현역장병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신청(참여시 기념품 및 위로휴가 제공)

유해 신원확인 시 1,000만원 포상금 지급

대표전화 1577-5625 (오! 6·25)

국가보훈처,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 발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 것”



국가보훈처 새 정책 브랜드 ‘든든한 보훈’

확실한 변화, 정책중심부처로 거듭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의지를 담은 새로운 정책브랜드 ‘든든한 보훈’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행사가 5월25일 세종청사 9동, 보훈처 앞에서 거행됐다.

이날 브랜드 선포식에서 박삼득 처장은 “확실한 변화를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고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책브랜드에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의 약속이며 희생과 공헌하신 분들에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선양하

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보훈처가 정책중심 부처로 거듭나는 다양한 보훈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든든한 보훈’의 실천을 위해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등록·보상체계 정립’하고 ‘특별한 희생’에 맞게 생전부터 사후까지 일반복지보다 한층 더 높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사회적 예우 보장’을 실시한다.

또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계승’하고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제대군인을 위해 ‘군 복무의 헌신을 위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신

6·25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김은기)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5월14일 오후 2시 전쟁기념관에서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은기 위원장은 이날 “국민 서포터즈가 6·25전쟁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국내외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는 국민 서포터즈는 6·25전쟁 70주년 사업에 관심 있는 전국 고교생 및 대학생, 일반인, 외국인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으며 6·25 박사 소녀, ‘꼬마 외교관’으로 잘 알려진 캄벨 에이시아(13)와 현직 고등학교 역사교사인 진성민(32)씨를 공동 단장으로, 대한민국 역사홍보 활동에 앞장서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명예단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미 보훈부 장관, 마스크 지원 감사 서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에게 지원했던 마스크에 대하여 로버트 윌키(Robert L. Wilkie)미 보훈부 장관이 국가보훈처에 감사서한을 보내왔다.

미 보훈부 장관은 감사 서한을 통해 “미국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마스크 지원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고 아울러 “우리가 보살펴야 할 참전용사를 위한 고귀한 대의

를 향해 함께 손을 잡아줘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5월 초 미 보훈부 장관에게 큰 위기에 처했던 6·25전쟁 당시 미국 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22개국 유엔참전용사에 지원하는 마스크 100만 장 중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으로 50만 장을 싣고 날아간 공군 수송기는 5월12일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에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미국 보훈부에 마스크 50만장을 지원해 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감사를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

2020 제대군인 취·창업 수기 공모

국가보훈처는 전역 후 취·창업을 위해 노력해 온 제대군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2020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를 공모한다.

제대군인의 취·창업 성공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하였더라도 도전과정에서 귀감이 될 이야기도 포함되는 이번 공모 참여 희망자는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하여, 5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메일(vnet@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과 가족을 포함해서 채용기업 관계자,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의무복무제대군인(취업맞춤특기병·등급미달경상이자·모병장병)도 가능하다.

국가보훈처는 감동, 진실성, 내용구성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2차례 내·외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200만원, 국가보훈처장상) 등 총 13명(1천만 원 상금)에 대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며, 오는 8월 10일(월) 국가보훈처 누리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2020 제대군인주간’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044-202-5732>

국가보훈대상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탁병원, 재해위로금, 생활조정 수당 등 개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서 재해위로금을 받게 된다.

그 동안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한 피해 입에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5월1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선과 업무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지난 3월24일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전했다.

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22개국 유엔참전

용사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함께 중국에서 예방용품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5,400개와 손세정제를 상해 총영사관 등 10개의 공관을 통해 지원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든 고령의 보훈 취약계층에 마스크 우편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 중지를 유예하고 최소 2, 3개월이 소요되는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미국 나바호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등 지원

6.25전쟁에 800여 명 참전, 숨은 영웅으로 맹활약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은기)는 6·25전쟁의 숨은 영웅으로 활약했던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Navajo)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마스크 1만장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은 6·25전쟁 당시 약 800명이 참전했고 이중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는 약 130명으로 추산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바호족 참전용사들은 구전으로 내려온 부족

고유의 나바호어를 사용하여 적국이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개발하여 암호통신병으로 크게 활약했다.

나바호족은 미국 원주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종족 중 하나로 아리조나와 뉴멕시코, 유타 등 3개 주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6년 6·25전쟁 제66주년을 맞아 나바호족 참전용사 3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특별기획 / 6.25 70주년 특집 화보

70년 전 그날의 아픈 상처 · 쓰라린 기억, 영원히 잊지 말아야 ...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1,129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국군 중에 14만명, 미군 3만 7천여명, 유엔군 4천여명이 전사하고 남북한 민간인 250여만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10만 전경고아, 1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그뿐만인가? 국토는 초토화되어 황폐해졌고, 국민들은 배고픔과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야말로 6.25는 민족의 재앙이었다. 그러나 강산이 7번 바뀔 수 있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남과 북의 분단과 정전상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또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6.25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70년 전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켰던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6.25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호국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진지구축에 나선 국군장병들...



부상당한 전우를 등에 업고...



무차별 포격으로 산을 이룬 탄피.



부서진 탱크를 잡고 북한군을 주시하는 맥아더 장군.



유엔군 폭격기의 위용.



한강을 넘어 남으로...생존을 위한 탈출.



시기전 후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국군장병들.



내 가족은 어디에...울먹이는 아낙네들.



끝없는 피난행렬...국군은 북으로.



참혹한 전쟁...날부러진 시신들.



고단한 피난열차...그래도 올린 게 천운.

향군-국방일보가 함께한 6.25 70주년 공동기획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 기리는 "리멤버 솔저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6월 6일이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인 6월 25일이 들어있어 정부가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 다양한 추모행사와 6.25전쟁을 잊지 않기 위한 행사가 추진된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라 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군은 6.25 7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부터 국방일보와 함께 특집으로 참전단체 릴레이 탐방 "리멤버 솔저스"를 시작했다. 6.25 참전단체들을 탐방 취재하여 전투수기 및 체험담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들에게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계승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3년이 넘는 1,129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다. 당시 풍전등화와 같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어 국군 중에 14만명, 미군 3만 7천여명, 유엔군 4천여명의 전사자와 남북한 민간인 200여만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10만 전경고아와 1천만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토는 초토화되어 황폐해졌고, 국민들은 배고픔과 온갖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나라에 바친 유가족들에게 6.25전쟁은 잊혀진 과거가 아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이요 참혹한 현실이다. 그야말로 6.25는 민족의 재앙이었다.

이제 70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러 이제 대부분의 참전용사들은 어려운 삶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났거나 일부 살아계신 분들은 9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향군에 참전 및 친목단체로 등록된 60여개 단체 중에서 6.25참전단체는 10여개 단체에 불과하다. 이중 일부단체는 전우회를 중심으로 기록들이 잘 정리되어있어 취재를 하여 보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취재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록으로 정리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마저 희미해져 인터뷰만으로 전면을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역사사진이나 활동상을 소개할 수 있는 기록사진들이 필요한데 너무 누렇게 빛바랜 팜플렛 속의 사진이 전부라니 순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그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역 후 결성된 전우회는 반세기가 넘도록 활성화되어 행사 때 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몇 년 전부터 점점 참석인원이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참석인원이 10명도



안되어 지난 연말 모임을 마지막으로 끝났다는 말에 세월의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취재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국방일보 기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이나 호국 영령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은 살아있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젊은 시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나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가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배로써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성세대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그 어떤 사후 보상으로도 바꿀 수 없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보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가나 국민들은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명예롭고 자랑스러웠음을 예우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리멤버 솔저스"는 7월 말 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홍보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4월21일 ~ 5월20일)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5월6일 구·군 회 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남구회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

중구회 : 5월13일 향군회관에서 회장단 및 임직원, 여성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회무 관련 회의 가져.



동구회 : 5월14일 지역 내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



수성구회 : 4월29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홍준표 국회의원 당선자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무관청(국가보훈처→국방부)이관 등 현안 간담회 가져.

강원도 향군



동해시회 : 북삼동회는 4월27일 쌍용가족봉사단과 함께 전천에서 환경정화의 날 행사를 갖고 정화활동 실시.

태백시회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두 달간 제작한 마스크 5,000장을 태백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달.

철원군회 : 여성회는 5월7일 승일공원에서 쾌적한 공원 환경정비를 위해 꽃 심기 봉사활동 실시.

충청북도 향군



괴산군회 : 여성회는 5월13일 여성회관에서 밀반찬을 조리하여 관내 결식노인 324세대에 간식과 함께 전달.

청주시회 : 여성회는 5월11일 개신동 배수지 일대에서 코로나 19로 중단했던 환경정화활동 재개.

대전 충남 향군



예산군회 : 4월29일 버스정류장 등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실천을 당부하는 홍보활동 병행.



보령시회 : 4월21일 보령노인종합복지관과 협약식을 갖고 5월이후 매주 수요일 정기적인 배식봉사 전개. 4월22일 읍 면 동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조직 활성화 방안 논의.

전라북도 향군



남원시회 : 여성회는 5월4일, 11일, 18일 요전변과 남원천, 향교동 전변 일대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

고창군회 : 5월6일 향군회관 화재사고 대비하여 소화기 및 난방장비 등 안전점검. 4

월27일 회원들이 모금한 코로나19 예방관련 성금을 경산시에 전달한데 대해 경산시장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4월2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요양 병원, 학교 등에 대한 방역활동 전개.

전주시회 : 5월7일 향군회관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 화재예방활동.



완주군회 : 여성회는 4월28일 삼례시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정읍시회 : 5월12일 정읍시 주관 안보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현충일 태극기 조기계양 협조. 5월14일 향군회관에서 북한, 대남 대외 정책 변화 전망을 주제로 읍 면 동회장 안보교육.

부안군회 : 5월14일 군의회를 방문, 부안군청 실무자와 군의원들과 보조금 확보를 위한 협조회의 가져.

익산시회 : 5월15일 향군회관에서 김복현 안보강사를 초청하여 "안보와 코로나 19에 관하여" 를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4월23일 곡성군 향군회관에서 동부회 회장단 회의, 5월12일 담양군 향군회관에서 중부회 회장단 회의를 갖고 현안 논의 및 상호 화합 도모.



완도군회 : 4월21일 완도대교 및 화흥포, 약산 당목항을 이용, 입도하는 차량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및 사회단체 회원 격려.

보성군회 : 5월6일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보훈 안보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후 현충탑 참배.

담양군회 : 5월11일 회장단 및 임직원, 여

성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현안 논의.



해남군회 : 여성회는 5월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달" 봉사활동 실시.



진도군회 : 5월10일 아리랑 회센터에서 서울 도봉 강북구 향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상생화합과 교류 다짐.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5월6일부터 11일까지 코로나19사태가 진정조짐을 보임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시 군 회장 및 임직원 감담회를 갖고 화합단결 정신으로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의 향군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

상주시회 : 5월7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읍 면 동회장 간담회를 갖고 안보현안 및 당면업무 논의.

경남 울산 향군

산청군회 : 4월21일 산청군 자활센터에서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 참여.



양산시회 : 5월6일 상북면 공암리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맥을 방문하여 집안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 실시.

합천군회 : 여성회는 5월6일부터 3일간

코로나19로 외출이 힘든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밀반찬 지원봉사활동 전개.

고성군회 :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생계보조비 대상자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꽃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

의령군회 : 5월11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얼이 살아있는 통일동산 6.25참전유공자비와 호국공원 주변 정화활동 전개.



하동군회 : 5월20일 6월 호국안보의 달을 맞아 지역 예비군대대의 협조를 받아 적량면 호국공원 제초작업 및 정화작업 실시.

진주시회 : 여성회는 5월20일 진양도 상류수변 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내 정화 활동 실시.



창원시 진해구회 : 여성회는 5월4일 제98회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저소득 부자가

정에 제과와 유제품 등 선물 전달. 5월1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유공시민표창 수여식에서 류화자 여성회장과 주춘옥 이사가 유공시민표창 받아.



울산 대표회 : 5월1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임무수행 중 순국한 김도현 공군소령 추모식 참석.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지난 4월18일부터 5월22일까지 6.25전쟁 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불우회원 19가구에 도배 및 장판교체를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4월28일 화목원에서 제9대 강성립 여성회장 취임식 개최.

◆우수회 탐방 / 전남 곡성군 향군

내실 있는 조직 운영으로 지역 대표단체 자리매김

지자체와 유대강화...조례 개정,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인구 3만의 소도시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로 유명한 곡성군에서 안보의식 고양과 봉사활동을 기치로 지역 중추단체로 자리매김한 곡성군 재향군인회는 지난 2017년 취임한 조희용 회장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내실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곡성군 향군은 ▲읍 면 조직 활성화 ▲회원 간 화합 친목 도모 ▲안보 및 봉사단체로서 위상 확립 등을 회 운영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중 국민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활동은 향군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활동이라는 판단 아래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다.

향군 존재가치 증명하는 안보활동 심혈 기울여

곡성군 향군이 자랑하는 평화통일기원 학생 백일장대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후계세대 안보의식 고양 및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지역 내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민회관에서 열리는 평화통일기원 학생 백일장대회는 올해로 13번째 개최되어 자라나는 후계세대의 안보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전 후반기로 나눠 전반기에는 각급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향군회원, 기관단체장, 군부대 장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보강연을 실시해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안보의식 고양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안보전적지를 탐방하는 안보현장 견학 순례행사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0여명의 회원과 6.25 참전유공자회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목포 고향도 이 충무공 유적지를 방문, 안보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안보단체 향군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보훈의식을 갖는 것이 곧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길이라는 판단에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기리는 보훈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곡성충의탑을 일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참배하여 호국영령들의 얼을 기리고 있으며 사업비 2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2011년 곡성군 참전기념탑 완공시켰다.

특히 참전용사 숙원사업이자 주민들



의 여망이었던 참전기념탑 건립을 위해 곡성군 향군은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우의를 강화해 왔다.

여성회의 활동 또한 남다르다. 지역 곳곳 여성회원들의 손길이 안 미치지 곳이 없다. 군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환경정화활동은 지역 환경 지킴이로 향군의 위상을 강화시켜주었고 겨울철 연탄봉사와 김장 나누기 봉사로 다문화가정 및 불우독거노인 등 소외계층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됐다.

남다른 여성회 봉사활동 지역 구석구석 손길 미쳐

곡성군 향군회관은 지난 1992년 준공된 노후 건물로 회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군비 1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아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과는 거리가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곡성군으로부터 사업비를 획득하는데 곡성향군 임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했다. 또한 곡성군 향군은 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곡성군의 예산수입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00만원을 획득했고 올해는 1천만원으로 증액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비만 지원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조희용 회장을 필두로 임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향군본부가 각급회 운영비를 삭감하자 회 운영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결과로 타 지역 향군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안이다.

1961년 12월29일 창립 이후 60년간 소박하지만 내실 있게 회를 운영해 온 곡성군 향군은 큰 부침없이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조직 곡성군향군 임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함께 이겨낸 역사 모든 이어갑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어려울 때 더 빛난 역사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미 동부 향군, 한인가족 지원 캠페인 동참

1,700달러 기부, '사랑 나눔, 식비지원' ...코로나 19 극복



미 동부 향군(회장 김인철)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한인가정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미 동부 향군은 5월17일 김인철 회장을 비롯하여 김한목 육군 부회장, 원응식 해군 부회장, 권용호 공군 부회장, 김화성 해병대부회장, 이인갑 사무처장 등이 미주한

국일보를 방문, 한인복지센터, 한인교회협의회가 공동 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 식비지원' 캠페인에 1,700달러를 기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철 회장은 "코로나 19로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장단과 임원 이사들을 중심으로 3일 만에 1,700달러를 십시일반으로 모금

했다"며 "동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지나 가면 한인커뮤니티센터 내에 사무실 설치하여 회원 단합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단합된 향군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향군, 이용범 시의회 의장에 공로회장



인천시 향군(회장 김형년)은 5월11일 시회 회장단, 여성회 회장단 등 과 인천시의회를 방문,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김진호 분회장을 대신해 향군 공로회장을 전수했다.

양구군 향군, 6.25참전 유공자 쌀 나눔행사



강원도 양구군 향군(회장 허남흥)은 5월21일 6.25참전 유공자회 양구군지회에서 6.25참전 유공자분들을 위한 나눔 사랑 쌀 기부행사를 열어 기증약정 체결 및 전달식을 가졌다.

공주시 향군, 코로나19 극복 지원 국군장병 격려



공주시 향군(회장 방재천)은 5월21일 회장단과 임직원, 여성회, 공주시청 관계자 등과 함께 공주대대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 ▲광복군동지회 : 6월1일 국립 서울현충원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에서 광복군합동 추모제.
- ▲ROTC중앙회 : 6월1일 국방컨벤션에서 59주년 ROTC의날 행사.
- ▲월남전참전자회 : 6월2일 더 K호텔에서 임원개선 임시총회
- ▲성우회 : 6월4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 ▲해병대전우회 : 6월4일 현충원 해병대 묘역에서 참배행사. 6월19일 양구군 도솔산전투 위령비에서 제69주년 도솔산 전투 전승 추모행사.
- ▲육군예비사관학교총동문회 : 6월5일 백마고지전적비에서 화살머리고지전투 추모행사.
- ▲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 6월6일 현충원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에서 제8240전사자 합동위령제.
-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 : 6월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모행사. 6월26일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65기 임관식.
- ▲정보동우회 : 6월6일 특수임무수행자총합담에서 합동추모행사. 6월10일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및 서리풀 등산.
- ▲포병전우회 : 6월10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 ▲전몰군경미망인회 : 6월11일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42회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
- ▲재향여군협의회 : 6월12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감종장교전우회 : 6월12일 육군보병학교에서 감종장교 창설 70주년 기념사업 조형물 준공식.
-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 6월17일 전쟁기념관에서 정기총회.
-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6월17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 ▲육군본부직할결사대전우회 : 6월18일 백골병단전적비 앞에서 전몰장병 합동추모식.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 6월18일 공군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 취임식.
- ▲전몰군경유족회 : 6월18일 중앙보훈회관에서 제43회 호자 효부상 시상식. 6월24일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제16회 호국영령추모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친목단체 활동

운영위원회의



성우회 (회장 이종욱)는 5월14일 향군본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거행했다.

'화합과 전진'의 장 위한 축하연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남권희)는 5월20일 국방컨벤션에서 육군학사장교의 '화합과 전진'의 장을 위한 축하연을 가졌다.

이흥희 총재 취임식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흥희)는 지난 4월18일 성동구에 위치한 전우회 사무실에서 제16대 이흥희 총재 취임식을 가졌다.

이규환 향군장학재단 이사장 장학금 500만원 쾌척

향군 장학재단 이규환 이사장이 4월24일에 향군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규환 이사장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고 국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보면 6·25전쟁 중에도 학업이 계속 되었던 것이 떠오른다”며 “지금의 작은 밑알이 먼 훗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회장은 이규환 이사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향군장학기금

※ 기간 : 20년 4월 25일 ~ 20년 5월 20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경기도 부천시재향군인회 심곡동회 회장 조상익 3(25)

▶ 정기기부

• 前 홍보실장 이정호 1(268)
• 권율부대 강모아 1(58)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 금 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6·25전쟁 전승기념관을 찾아

대한민국 해병대 최초 단독상륙작전 성공 기려 용맹함 상징 ‘귀신잡는 해병대’ 신화 창조한 작전



통영상륙작전기념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성공한 최초의 상륙작전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을 탄생시킨 ‘통영상륙작전’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지상 2층, 연면적 316㎡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디오라마관, 체험시설,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디오라마관은 해병대에서 기증받은 무기류와 통영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성은(1924-2007년) 장군의 유품, 해병대 역사자료 등이 전시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던 원문공원(원문고개)에 자리잡은 기념관은 통영상륙작전 기념전적비와 해병대가 사용하다 퇴역시킨 상륙장갑차, M-47전차 등이 전시돼 있어 기념관과 더불어 호국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성은 장군 흉상

해병대 통영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8월 17일 김성은 중령이 지휘하는 해병1대대가 단독으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바다를 통해 상륙, 통영과 거제도를 점령하려던 북한군 7사단을 무찌른 전투다.

※ 통영상륙작전

1950년 6·25전쟁 중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통영반도에 최초로 적전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통영을 탈환한 작전이다. 1950년 8월16일 미명을 기하여 고성으로부터 통영으로 향함 북한군 제7사단 제51연대와 제104치안연대의 650명이 1950년 8월 17일 새벽 1시통영시내로 침입해 왔다. 이에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즉시 거제도에 상륙하여 통영으로부터 거제도에 침입하려는 적을 격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통영 근해를 경비하던 해군함정 703·901·504·512·302·307호정 및 평택호 등의 지원 엄호 하에 8월17일 18시 통영반도 동북방에 있는 장평리에 상륙을 개시했다. 상륙을 완료한 해병대는 밤을 새워 가며 맹렬한 공격작전을 감행하여 8월18일 새벽 제2중대가 원문고개로 진격하여 방어진을 구축했고 제7중대는 통영전투에서 승패의 관건이 되는 매일봉을 점령했다. 적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8월18일 12시부터 해군함정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8월19일 10시까지 통영시내 소탕작전을 벌여 잔적을 완전히 소탕했다. 통영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해병대는 적의 유일한 공격로이며 통영 공격의 전술상 요지인 원문고개에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여 빈번히 습격해 오는 적의 대부대를 격퇴시켰고 1950년 9월23일 서울탈환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으로 출항할 때까지 통영을 평정하여 당시 이 작전에 종군했던 외신기자들은 ‘귀신잡는 해병’이라는 특필보도로 저마다 최대의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건강정보

환경요인 관리가 중요한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은 상기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비강으로 흡입된 특정 원인 물질(항원)에 대해 코의 점막이 과민반응을 일으켜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등의 주증상이 나타나는 코의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이다.

맑은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 양측의 코막힘, 눈과 코 주위의 가려움증 중 2가지 이상이 하루 1시간 이상 나타나면 감기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하게 된다.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 일 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인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과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인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증상

알레르기 비염은 비출혈과 코막힘, 수양성 비루(콧물), 재채기, 눈과 코 주위의 가려

움증, 후비루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중 코막힘, 재채기, 수양성 비루, 가려움증을 알레르기 비염의 전형적인 4대 증상이라 한다. 그 외 눈물, 두통, 후각감퇴, 폐쇄성 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인

알레르기 비염은 비강으로 흡입된 특이 항원에 의해 체내에서 과민반응을 보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증상이 발현된 경우 온도 변화, 담배연기, 공해 물질과 같은 비특이적 자극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진단·검사

비염의 경우 증상, 가족력, 주변 환경, 이전의 치료 경력 등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진단에 가장 중요하며, 비염으로 병원을 찾게

되면 내시경 등으로 코 내부를 확인하여 점막 및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게 된다.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는 경우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찾는 피부단자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통해 원인 항원을 알아낼 수 있다.

치료방법

알레르기 질환은 짧은 기간 치료로는 완치가 어려우며 꾸준한 관리를 통하여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화 시에는 약물치료 등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항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줄여주는 것으로 환경관리(회피요법)를 말한다. 비염은 자극에 의해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금연은 물론 간접흡연도 유의해야 하며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등이 심한 날은 가능한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내를 청결히 유지하여 집 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등의 알레르기 유발 요소를 멀리하고 애완동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염 치료는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요법이 가장 기본적이며 경구 약제 및 비강 분무형 스프레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원인 물질을 찾아 3-5년 정도 장기간 희석시킨 항원을 주사하거나 혀 밑에 넣어 면역반응을 변화시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면역요법이 있으며 구조적 이상이 동반되었을 때는 수술적 교정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안보정세보고

최근 북한 정책전환 과정 특징

인적 변화 줄고 메시지 차원 변화가 중심역할 차지

북한은 대외에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 과정의 상당 부분을 지도자 개인 결정 요인으로 해석되었고, 주요 전환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징후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누적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정책결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노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핵·경제 병진노선’ △이후 2019년 4월까지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이후 현재까지의 ‘자력갱생 정면돌파전 노선’을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안보·경제 현안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책 중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나타난 정책노선의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북한 최고지도부의 정책결정 무게중심을 추적해 김정은 체제가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정책전환의 매커니즘

그 동안 북한은 정책노선에 변화가 생길 경우,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대내 메시지 차원의 변화와 △핵심관료그룹 교체 등의 인적 차원의 변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왔다.

북한 체제는 기존 노선의 공식적 폐기를 선언하는 일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러한 공식화가 자칫 이전 노선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수령의 무오류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노선 전환 과정에서 지도자의 위상을 보호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 메시지 발신의 변화 양상

북한은 정책적 방향성을 지시하는 체제 담론을 종종적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나의 담론 패키지 안에 둘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심어두고, 필요에 따라 이들 사이의 강조점을 옮겨가며 정책변화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는 매커니즘이 대표적이다. 다만 모든 정책적 옵션을 제시하는 와중에도 비중의 차이는 명확히 존재한다. 등장빈도나 강조점, 주요 접점 사이의 수준 등을 감안하면 초점은 “상황이 불리할수록 공격적 태도를 견지하라”는 메시지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맞춰져 있다. 공격적 태도가 주된 선택지라면 유화적 태도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수적 선택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강경론 혹은 공세적 태도가 필요한 수세국면에서 의지와 사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등 유화국면에서는 창조적 대응과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주로 차용한다.

나. 핵심관료그룹의 인적 변화 양상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 과정에서 활용돼 온 또 다른 방식으로는 특정분야 책임자들을 문책·교체하는 방식으로 정당화하는 매커니즘이 있다. 이전 시기의 오류는 당시의 관료그룹 책임으로 돌리고, 이를 작기에 발견한 지도자의 능력을 칭송함으로써 위상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지도자의 결심에 따라 특정 노선을 주도한 관료그룹 전체를 교체 혹은 제거하는 이 같은 방식은 북한 정치에서 숙청 혹은 처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배경이다. 상황변화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한 최고 인민회의

정책노선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대립되는 정책노선을 지지하는 복수의 그룹이 내부 토론을 통해 경쟁을 벌이고, △최고지도자가 최종적으로 특정노선을 선택하면 해당 노선의 지지그룹을 승진 기용해 책임을 맡기지만,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이들을 교체한 뒤 새 노선의 주도세력을 발탁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이는 선거와 정권교체를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전환을 공식화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매커니즘을 권력엘리트 내부의 인적 교체로 대체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외부의 관찰자들은 북한 고위층에서 큰 폭의 인적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노선 전환 결정의 시그널 혹은 결과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안보영역의 정책전환

북한은 1960년대 중·소 갈등의 와중에 탄생한 이른바 ‘주체외교’ 노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책노선의 전환이 없었고, 오히려 두 차례의 후계 세습을 거치면서 기존 노선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정책전환의 맥락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시기와 상황에 따라 도발과 대화를 큰 폭으로 오가는 노선 전환이 반복돼 온 바, 메시지 차원과 인적 차원의 변화가 모두 나타난다.

가. 메시지 변화

2016년 이후 안보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한 대내 메시지에서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라는 전통적인 국제정치 인식이 2018년 초 협상국면 돌입과 함께 크게 얽어졌다. 대신 이 시기 북한은 ‘행성을 진감하는 대담한 외교’ 같은 표현을 통해 앞서의 프레임 혹은 구분선(fault line)을 뛰어넘는 김정은 체제의 ‘창조적 행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적극 사용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에는 기존 담론으로의 회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중국·러시아·이란 등을 포괄하는 ‘반미 블록화’ 프레임의 강조로 귀결된 바 있다.

또한 2019년 말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북측의 관련 메시지는 정면돌파전·자력갱생·공세적 태도를 강조하며 사상교양과 ‘수령에 대한 충성’에 압도적인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상황이 수세에 접어들면서 과거 혹은 선대에 대한 회귀를 통해 ‘장기전’으로의 노선 전환을 정당화하는 흐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나. 인적 변화

메시지 차원의 변화에 비해 인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미 고위급협상을 담당했던 김영철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장과 리홍호 외무상의 퇴진은 확인된 바 있으나, 최설희 외무성

부상과 조철수 미국국장 등 하노이 회담 이후 대미협상을 담당했던 인물들은 자리를 지키거나 승진했고 최강일 부국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대사로 발령받았다.

언뜻 이러한 상황전개를 ‘포스트 하노이’ 상황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라인을 문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통일전선부의 주요 구성원이 대부분 교체·숙청됐던 이전의 인적 변화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시지 차원의 변화가 매우 급격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수준의 인적 변화의 폭은 크게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연말 긴장고조 국면을 거치면서 상당수 외부 관찰자들이 외교라인의 대대적 숙청을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경제영역의 정책전환

안보분야의 경우 북측은 협상국면에서도 내부 강경파의 존재를 암시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나름의 이중협상게임(Two-level Game)을 구사해 왔다. 상대가 제시하는 카드를 권력엘리트 일각에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양보를 내부반발을 뚫고 이뤄낸 결단으로 포장하는 경우이다.

반면 경제영역에는 외부와의 협상이 없으므로 강온과 사이의 노선 차이를 암시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동이 필요 없고, 따라서 노선 차이가 명확한 두 그룹을 굳이 동시에 유지할 필요도 없다. 이로 인해 정책노선 전환에 따라 인적 변화는 매우 손쉽게 이뤄져 왔고, 이를 연결해 설명하는 외부의 해석 역시 높은 수준의 설득력을 유지해 왔다.

경제영역은 안보영역에 비해 변화의 진폭이 커 보이는 경향이 있다. 주요 경제개혁 조치와 후퇴의 반복과정은 일반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과급이 크고, 따라서 변화의 폭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일 수 있다.

가. 메시지 변화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한 메시지 차원의 변경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특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사경제 영역의 존재 혹은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경제 영역의 재량 확대를 용인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창조적 해법 모색’ ‘현실에 근거한 정책 집행’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매우 우회적인 방식으로만 언급해 왔다. 이러한 전제 하에 최근 경제영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2019년 연말 당 전원회의를 전후해 별다른 사전징후 없이 정책노선 전환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돌연한 정책기조 변경은 △전환이 매우 갑작스럽

게 결정됐으며, △경제영역 고유의 논리보다는 안보영역 변수인 핵 협상 교착 장기화에 따라 종속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시사한다. 이후 최근까지 관영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통치력 강화 기조의 방향은, 2009년 화폐개혁처럼 장마당 등 사경제 영역 확산을 본격적으로 저지하려 시도하기보다는 중앙이 경제 실상을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적 변화

흥미로운 대목은 전원회의 결정서에 담긴 최고지도자의 통렬한 비판에도 경제 분야의 인적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의 주석단에는 정중양에 최룡해·박봉주·김재룡 3인이 자리함으로써 이들의 위상이 재확인된 바 있다. 내각 보고에 등장하는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질책과 기조 변경에도 최고책임자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이전의 패턴과는 사뭇 다르며, 안보영역에서의 인적 변화 역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과 연결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대목이다.

종합 분석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안보와 경제영역 모두에서 정책노선 전환에 따른 인적 변화는 이전에 비해 상당부분 줄었고 메시지 차원의 변화가 중심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된 이래 ‘협상 노선으로의 전환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적한 치열한 내부 논쟁이 진행돼 왔으며 △장기 교착을 각오하면서 안보에서는 과거 담론으로의 회귀, 경제에서는 정면돌파전으로 전환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협상 국면을 책임졌던 이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나 문책 없이 포용한 것이 방증이다. 인적변화의 최소화는 노선 전환마다 숙청·교체를 반복할 경우 관료그룹의 노선 토론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해관계의 싸움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고, 특히 새 노선을 입안한 그룹은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에 강하게 저항할 공산이 커진다. 반면 노선 전환과 인적 교체의 동기화를 줄이고 메시지 차원의 변화에 주력하는 현재 모델은 이전 노선으로의 회귀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측면이 있다.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핵 협상과 연관 지어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관련한 북측의 정책결정이 상당한 수준의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전에 목표와 경로가 뚜렷한 시나리오를 정해두고 차근차근 밟아나간다고보다는, 상황에 따라 내부 논쟁을 거치며 복수의 선택지를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미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가 정책 선택지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방증일 수 있다. <호국안보국>

【참고자료】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0. 4. 23,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 본 안보정세 분석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